



**ART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2017 KOREA

BEXCO Hall 1

2017. 6. 2 ~ 6. 5

Booth No. F-17



KIDARI GALLERY

Baek Jung-gi



벚꽃 피던 날 / 116.8 X 91.0 cm / Acrylic on Canvas / 2017



백중기

강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 21회, 그룹전 다수

자연 속 풍경에 향수를 담아내는 서양화 화가

작가는 주로 여행을 통해 아름다운 장소에서 영감을 얻어 작업한다. 자연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작가는 자연을 벗삼아 동심으로 돌아간다. 그런 그의 작품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느새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꼬마 아이가 되어 그 시절의 감성에 젖어들게 된다. 두터운 질감의 마티에르 기법의 화풍은 아련한 느낌을 더해준다. 그의 작품은 추억 속 고향을 떠오르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서정적인 풍경화의 진수라고 평가 할 수 있다.



one's eyes / 80.3 X 71.0 cm / Eastern Watercolor, Acrylic on Hanji / 2017

다육식물 소녀를 탄생시킨 한국화 화가



서승은

계명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14회, 그룹전 60여회

작가는 한지의 특성을 살려낸 특유의 채색 방식과 함께 세계 최초로 '다육식물 소녀' 라는 창의적인 소재를 만들어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초현실주의적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육식물소녀는 꿈, 소망, 내적 강인함, 인고, 결실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녀의 눈빛을 통해서 작품의 감성을 읽어낼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다육식물소녀 작품들이 크게 이슈가 되어 중국 국영 출판사와 작품 에세이집 출간을 계약하여 본격적인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영남일보 '문화산책' 칼럼을 쓰고 있다.



wild auma 2016 horse 010 / 100 X 100 cm / Oil on Canvas / 2016



탁 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중퇴

개인전 14회, 그룹전 다수

저서
2008 '볼 수 있으면 그릴 수 있다'

야생의 기운을 담아내는 추상적 표현주의 화가 - 탁노

거침없는 터치로 야성을 화폭에 담아내어 역동성과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탁노 작가는 강한 터치와 색감 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한다. 야생의 기질을 가진 동물들 주로 늑대, 말, 독수리, 황소를 그리며 인간의 내면 속 깊숙히에도 자리잡고 있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처절하고도 외로운 본능과 야성의 순수성을 일깨워주고자 한다.



Shin Gyeong-mi



물고기와 꽃 / 116.8 X 91.0 cm / 혼합재료 / 2016

신경미

호남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9회, 그룹전 다수

수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2회 입상

한국미술협회 학회 특선 2회

신조형 미술대전 특선 2회

한국의 전통적 소재와 감성을 담아내는 서양화 화가

신경미 작가는 전설 속의 봉황과 물고기, 여인을 기묘하고, 자유롭게 그려내는 독특한 표현주의 화가이다.

서양화의 재료인 유화로 작업하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황, 청, 백, 적, 흑 등 우리의 전통적 색채감과 함께 울동적인 검은 선들을 넣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전통적 한국화의 느낌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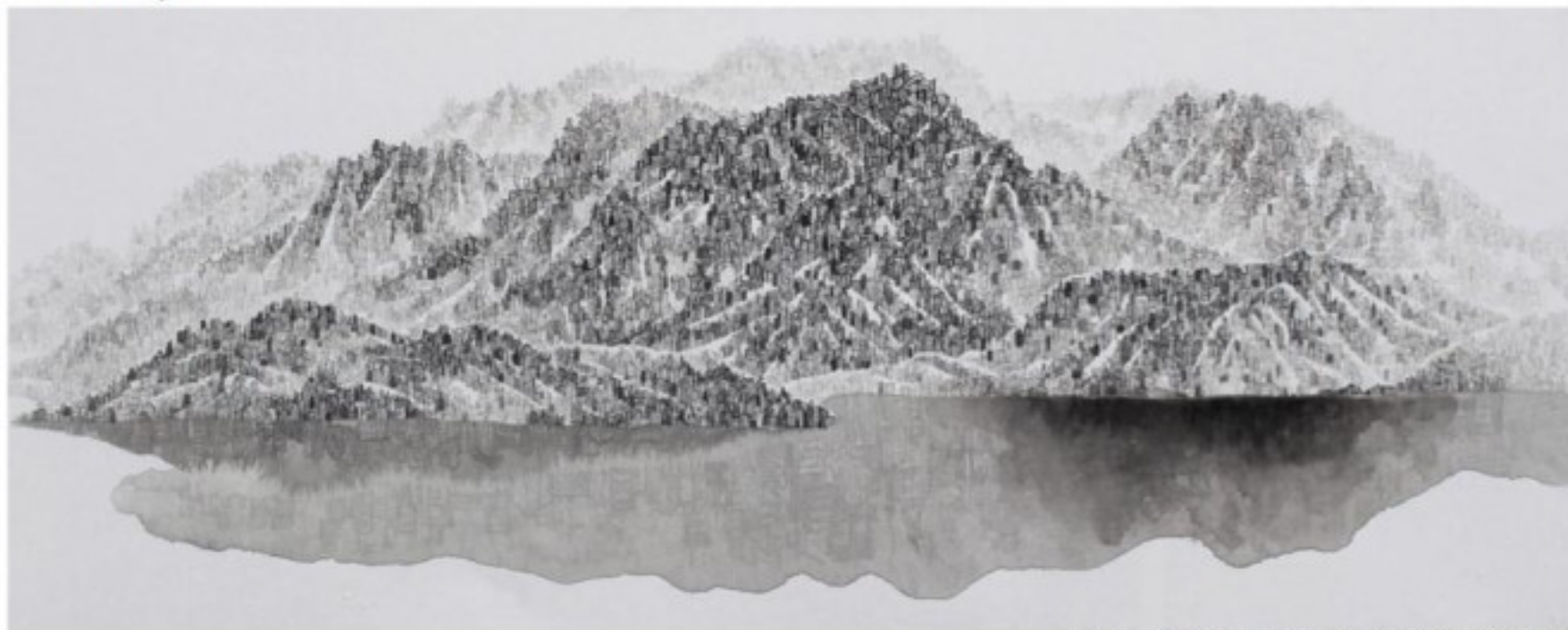
아울러 자신만의 독특한 관념으로 추상과 구상을 넘나든다. 작품에 등장하는 전설의 새 봉황은 부부금슬이 좋아질 뿐 아니라 자손번창과 복이 따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고기와 여인은 일편단심 하는 여자의 지고지순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독일 드레스덴, 파리 루브르 박물관, 중국 상해 개인전을 통해 한국적인 색채와 소재의 작품을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키다리 갤러리 전속 작가로 합류 하였다.

Heo Ju-hye



Eclipse3 / 60.0 X 150.0 cm / 순지에 수묵 / 2017

허주혜

충북대학교 미술과 동양화 전공 졸업
충북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졸업

개인전 2회, 그룹전 10회

수상
2011 충북미술대전 대상 외 9회

건축물로 가득 채운 전통 수묵 산수화

허주혜 작가는 한국의 전통적인 재료인 먹과 화선지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한국화 작가이다. 최근에는 순지에 수묵으로 작업하면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멀리서 보면, 전통 산수화를 보여 주는 듯 하지만,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무수한 현대 빌딩 건축물들로 산수화의 풍경을 채워져 있다. 충북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KBS1TV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이라는 기획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 시대의 산수를 건축하다'라는 타이틀로 소개되어졌다. 전통적 한국화 안에서 실험적으로 접근해 나가며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작업을 기반으로 꼼꼼하고 성실한 면모를 보여줘 앞으로가 기대되는 신진 작가이다.

Huh Chae-won



marchen : Red riding hood / 117 X 91 cm / oil on canvas / 2017

허재원

대구예술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회, 그룹전 18회

현실과 동화 세계를 연결하는 공간

허재원 작가는 2014년 키다리 갤러리에서 청년 작가 지원 프로젝트에 공모하여 선정된 신진 작가이다.

작가는 어린 시절 부터 자신이 동경하던 동화 속 주인공을 테마로 주관적인 생각과 바램들을 상징적으로 작품에 이입하여 표현한다.

사실적으로 표현한 현실적 배경 위에 놓여지는 동화속 주인공은 시공간을 넘나든다.

작가가 작품 속에서 표현하는 빛의 영역은 꿈과 이상이 실현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있는 현실 세계로 넘어오고 싶은 동화 속 주인공의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우리 인간이 동화 속 순수의 공간으로 들어가고픈 바램의 대상적 공간이 되기도 한다.

두 영역의 경계선이라 할 수 있겠다.

허재원 작가는 리얼리즘으로 작업한 배경 위에 동화 속 주인공 엘리스를 그린 시리즈 작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여 '엘리스 작가'라고도 불린다.

Shin Dae-jun



바람이 불어오는 곳 / 91.0 X 116.8 cm / Acrylic on canvas / 2017

신대준

동아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개인전 4회, 그룹전 24회

소년과 빨간 코끼리의 동행

신대준 작가는 빨간 코끼리를 소재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자신만의 느낌으로 화폭에 담아내는 서양화 작가이다.

숲에서 바람의 노래를 듣는 순수한 모습의 소년 그리고 소년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인 코끼리의 모습은 평온을 느끼게 해준다. 빨간 코끼리는 어린 시절 나를 묵묵히 바라보며 지켜주 시던 아버지의 존재를 형상화 했다. 그와 동시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이의 아빠가 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작품을 바라보는 이에 따라서는 내 마음에 존재하는 수호신, 커다란 엄마의 품, 든든한 친구, 든직한 남편의 모습으로도 연상 된다. 언제나 나의 곁에서 함께 걷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내리는 비를 막아주고, 편안히 기대어 책을 읽고, 말없이 마주보며 마음으로 서로를 느끼는 관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신대준 작가의 그림 속 이야기들은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느낌으로 관객에게 평온함을 주며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Kim Ba-reum



PLANET B612 / 25.0 X 25.0 cm / 장지에 채색 / 2017

김바름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졸업

개인전 2회, 그룹전 12회

2014 키다리 갤러리 키펙전 최우수작가 선정

자연 속 풍경에 향수를 담아내는 서양화 화가

김바름 작가는 우주 속 다양한 행성들을 상상으로 한지에 그려내는 한국화 화가이다.

작가가 그려낸 행성의 모습들은 망망대해와 같은 현실의 우주 속에 실제로 있을 법한 행성의 모습이기도 하고,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가 살던 동화 속 행성과 같은 모습이기도 하다. 그곳에는 우주를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며 여행하는 요상한 동물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 시켜 창조해낸 캐릭터 '슴츠레' 이다.

'슴츠레'는 작가의 분신이며 자아인데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내면 속에 존재하는 진실 된 자아의 모습,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키다리 갤러리에서 주최한 신진작가 소개전 '키펙전'에서 전문가 심사 및 관람객 참여 평가를 통해 최우수 작가로 선정된 작가이며, 2016년 아트부산에서 전시 작품이 모두 완판 되며, 새롭게 주목 받고있는 신진 작가 이다.

JIH



가죽 / 117 X 91 cm / oilpastel on panel / 2016

빨간 입술로 주목 받는 신세대 팝아트 화가

지히 작가는 가볍고 밝은 조형언어로 풀어내는 신예 작가이다. 작품에서는 눈, 입술, 눈동자, 말들과 같은 행위들을 분절하고 기호화 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언어, 수학, 음악 등 다양한 일반적 기호들과 매치시켜 대화 발생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인간의 관계와 같은 심리적 탐구를 그 기반으로 하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2차적 상상력을 유발하여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재미를 안겨준다. 자신만의 생생한 색채 함축적 기호와 텍스트라는 필터를 통해 가벼움과 통찰, 낙서와 예술의 세계를 오간다. 추상적이지만 익숙한 하트와 입술문양을 소재로 한 작품과 사랑이라는 감성을 꽃의 형상으로 승화시킨 작품은 독창적이면서도 세련된 감각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여성캐주얼 브랜드 '지컷(g-cut)'이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맞아 지히 작가와 함께 2017년 봄, 여름 시즌 컬렉션을 협업했다. 작가 특유의 꽃, 입술, 하트 모티브를 활용한 패턴과 색감의 세련미가 돋보이는 협업 컬렉션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 히

서울여자대학교 서양화 전공 졸업

개인전 5회, 그룹전 20여회

< 행사 안내 >

행사명 : 2017 아트부산

장 소 : 부산 BEXCO 제 1 전시관 1층

기 간 : 2017년 6월 1일 (목) ~ 5일 (월)

키다리 갤러리 부스 : F-17 (앞쪽 두번째 줄)

일반 관람 시간

6 / 2 (금) ~ 4 (일) 12:00 am - 8:00 pm

6 / 5 (월) 11:00 am - 5:00 pm

(전시 마감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특별 관람 시간 (VIP초대권 소지자)

6 / 1 (목) - VIP Preview 3:00 pm - 8:00 pm

현장 문의 : CP.010-8466-8000

< 키다리 갤러리 전시 안내 >



키다리 갤러리 (위치:대구시 봉산문화거리 입구)

전시명 : 인물화 기획전 - 'The Face'

2017년 5월 30일 (금) ~ 6월 18일 (일)

이상원, 정중원, 김민규, 문형태, 서승은 외 30명
100 여점의 다양한 인물화 작품을 전시 합니다.

(문의전화 : 070-7566-5995)



